

# 중도층 확장·코로나 방역·TV 토론이 대선 승패 가른다

20대 대선이 이제 6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대선 초반 판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접전 양상이다. 어느 누구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점에서 부동층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판세는 유동적이며 각종 변수는 대선 판도를 뒤흔들 전망이다. 내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주요 변수와 관련 포인트를 조망해본다.

◇단일대오=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가 얼마나 중도층에 확장성을 보이느냐가 승부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진영의 결집이 중요하다. 일단 민주당은 단일대오 형성에 성공한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와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전면에 등판한데다 과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대통합 카드로 진영의 결집을 이뤘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홍역을 치르던 이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 언제쯤 단일대오를 형성, 민주당과의 경쟁에 나서느냐가 대선 중반전의 변수로 꼽힌다.

◇코로나19 방역=코로나19의 대확산은 여권에겐 대형 악재다. 당장, 위드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었다는 민심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방역 강화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는 흐름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권에선 1월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서두르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

## 연대·단일화 여부 관심 네거티브 공방 치열 전망 비호감 대선 부동층 늘어 지역·진영구도 약화도 변수

다. 이런 가운데 대선 이전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시화된다면 여권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TV 토론=후보자 역량 검증도 대형 변수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TV 토론은 판세를 뒤흔드는 대형 폭탄이 될 수 있다. 일단 정치권에선 정치적 경향이 맞고 말 재주가 좋은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증명됐듯이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 어법은 물론 TV 토론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다. 윤 후보의 각종 말 실수도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조속히 양자 토론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지난 경선에서 16차례나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기대 밖의 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대 및 단일화=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접전 양상이 계속될 경우, 연대 및 단일화도 대형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몸 값이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김민진 경희대 교수가 최근 윤 후보 선대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안 후보에 '이재명 후보와의 결합'을 권유하는 등 러브 콜을 보내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및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민



‘블루소다’ 개관식서 축하하는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당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연합정부 구성을 지렛대로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물결의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 끌어안기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네거티브 전쟁=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네거티브 공방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이슈를 두고 여야 후보들의 공방전은 대선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진상 규명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공방만 거세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양날의 칼이다. 윤석열 후보도 가족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건희씨가 경력 부풀리기에 대해 사과했지만 아직은 불씨가 살아있다. 여기에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와 요양병원 부정운영 등으로 재판 받고 있는 장모도 정치적 부담이다. 이는 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무색케 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민심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네거티브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부동층 확대=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 부동층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반대로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최선도 차선도 아닌, 최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은 20~25%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대선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의 부동층은 과거 경계가 모호했던 기권층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과 이념,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적극적인 부동층이 중도 성향의 ‘합리적 유권자’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일자리, 경제 등 민생 문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부동층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지역 및 진영 구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후보가 영남에서, 윤 후보가 호남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도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호남 민심 잡아야 대선 이긴다”... 여야, 지지율 끌어올리기 ‘울인’

민주, 전국 민심결집 촉매제  
80~85%돼야 안정적 승리

국힘, 신규 당원 8배 증가  
서진정책으로 10%대 기대

2022년 대선의 해가 밝아오면서 호남 민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체제 속에서 치러진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완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도 호남 민심의 선택이 대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20~30세대 및 중도층의 선택도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 수석을 이재명 대선 후보 직할 기구인 호남특별단장에 임명하는 등 호남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호남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호남 탈레기에 나섰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 민심 대부분은 ‘정권 재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울인’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

이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은데다, 호남이 민주당 결집의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호남 민심 결집이 전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호남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의 선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 핵심인사들은 호남을 찾아 “호남에서 80~85%이상의 지지율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호남인들이 늘면서 ‘민주당 몰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

표 선출 이후 호남지역 신규 당원이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동안의 ‘서진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려왔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해 연말 광주와 전남을 찾아 동서 균형발전과 지역의 벽을 뛰어넘는 국민통합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의 이번 호남 방문은 정권교체를 위해 중도·진보 진영까지 폭넓게 다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호남에서 젊은 층의 표심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관전 포인트로 손꼽힌다. 4년 전 19대 대선에서 진보적 성향이 뚜렷했던 이들 세대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선 상당수 보수 정당으로 돌아섰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탈·복당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방침이 ‘민주당 결집’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하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키로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전남지역 정세가 술렁이고 있다. 중앙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통합을 통한 집투끼를 총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지역정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과거 탈당자 대부분이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이며, 탈당자에 대한 복당 허용에 공천과정에서의 감점까지 없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올려야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호남 10%대 지지’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호남의 선택이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

<h3>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h3> <p>기초반, 중급반</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신축원룸매매(신축)</h3>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p> <p>●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gt; 9억</p> <p>급매가 -&gt;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p>★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최저가 1억7천 (1/21)</li> <li>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gt; 최저가 1억1천 (1/27)</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gt; 최저가 66억 (2/3)</li> <li>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5억6천 (2/3)</li> <li>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2억2천 (2/3)</li> </ul>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5억1천 (1/10)</li> <li>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최저가 14억 (1/10)</li> <li>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22억 (1/10)</li> <li>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gt; 최저가 3억5천 (1/20)</li> <li>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6천1백 (1/27)</li> <li>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ul>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gt; 13억 (1/13)</li> <li>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gt; 최저가 32억 (1/25)</li> </ul>	
<h1>010-6670-9800</h1>			